

# 칼빈의 現代的 意義

박 형 룡

16세기 종교개혁시대(宗教改革時代)에 대 개혁자며 대 신학자인 존·칼빈이 해설한 기독교의 교리적 실천적인 여러 문제들은 거이 그대로 오늘날 우리의 문제들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종교개혁시대(宗教改革時代)의 칼빈사상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조력과 지조를 찾으려는 사상가들이 많다는 것은 결코 부자연한 일이 아니다. 이에 칼빈의 현대적 의의가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20세기 중엽은 칼빈 사상에 대한 관심이 부흥된 때다. 칼빈의 탄생 400주년인 1909년의 기념할만한 해 이후에 칼빈에 대한 연구가 성행하였던 것이다. 제2차대전 이전에 칼빈에 대한 관심의 부흥기는 이미 왔던 것이다. 1939년 미국에서 기독교강요선(基督敎綱要撰)을 편집하여 간행하는 인사는 서언에서 말하되 『근년에 이르러 보통 칼빈주의라고 부르는 신학사조의 부흥이 일어났다』(Hugh Thomson Kerr, "A Compend of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939, Preface), 차년(次年) 동국(同國)에서 「칼빈주의」를 저술하여 간행하는 인사도 서언중에 말하되 『본서는 마침 부흥되는 칼빈주의에 대한 관심과 때를 같이하여 시의(時宜)를 얻은 감이 있다. 칼빈주의에 대한 관심은 현대신학(現代神學)의 한 특징이다』(A. Dakin: "Calvinism," 1940, Preface).

이 부흥의 표시로 칼빈에 대한 글과 칼빈이 지은 글을 많이 읽게 되었다. 말하자면 칼빈의 전기(傳記)가 많이 출판되었고 그의 저서가 또한 그리되어 많은 사람들의 애독을 받는다. 예를 들어 말하면 항가리에서는 기독교강요(基督敎綱要) 1536년판의 번역이 나왔고 불란서에서는 새로운 번역이 간행되었고 독일에서도 신역(新譯)이 출판되었다. 화관에서는 개혁신교회 각종 칼빈에 관한 교본(敎本) 대중적인 평이(平易)한 주해 및 상당 수의 역사적

## 칼빈의 現代的 意義

서적을 간행하고 독일과 불란서의 학자들도 칼빈의 각 방면의 저서에 주의를 돌리고 있다고 한다.

전기와 같은 칼빈사상에 대한 관심의 부흥은 부분적으로 칼·팻트의 서적들과 신학적영향(神學的影響)에 기원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팻트와 그의 학파의 사상이 많은 점에서 칼빈의 사상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오늘날의 칼빈주의 세력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 것이라 한다. 팻트 자신에게서와 그를 통해서 칼빈의 신학에 있는 많은 근본적인 특징들이 현대적으로 전개되어 찬의와 존경을 받게되며 따라서 그것들은 기독교적사유(基督敎的思惟)에 대해서 항구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냐 하는 인상을 주게 되었다 한다. (Dakin: op. cit. ch. XV), 또 팻트신학이 현대주의(現代主義)와 정통주의(正統主義)를 좌우로 배격하면서 자체는 개혁신앙의 회복이라고 자칭할도 사실이다. 심지어 팻트신학을 「신칼빈주의」라고 부르는 일도 있다.

팻트신학을 개혁신학(改革神學)의 회복으로 보는데는 무시할수 없는 의의가 있다.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의 권위(權威)는 분명히 칼빈이 그의 기독교원리의 기초를 삼은 그것과는 별개물이다』(Wilhelm Pauk: "Karl Barth Prophet of new Christianity?" 1931). 그의 저서「하나님의 말씀」에서 팻트는 전통적이며 교회적인 칼빈주의를 기각(棄却)하고, 칼빈의 모든 교훈과 교회정치와 윤리를 모다 유지하는 (특히 장로교파에서와 같이) 칼빈주의도 배척하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수여된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팻트신학이 칼빈의 신학에 있는 어떤 근본적인 특징들을 이용하므로, 알미니안 주의에 호의를 표하는 근대자유주의신학(近代自由主義神學)에 다소의 타격을 줄런 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 신학이 비록 칼빈주의를 그대로 지원하지는 않을지라도 그것에 대한 관심을 이트킬수 있을것이다.

근년 기독교계에 칼빈에 대한 관심의 부흥이 있다면, 그리하여 칼빈의 현대적의의를 깊어지게 하였다면, 그것은 시대의 사상적빈궁(思想的貧窮)이 일으킨 요구에 응함이라고 말함이 보다더 원만할것이다.

### 칼빈의 現代的意義

신학교리(神學敎理)의 방면에서 볼때, 16세기 종교개혁이 칼빈주의 신조들을 형성한 원리들에 기초하였고 그후 모든 복음주의 교회들의 신조 혹은 신학문서들이 이 원리들을 포함(包含)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는 두렵건대 많이 뒤집어진 진술이 진실에 가까울것이니 대개 어느 방편을 드려다 보든지 낡은 신도개요(信道揭要)들과 교리표준들로 부덕 표류(漂流)하여 떠나감이 있어왔다는것, 그리고 지금 최대다수의 사람들은 알미니안 주의의 칭호아래 오는바를 주장하며 가르치고 칼빈주의는 『낡아 빠지고 노폐(老廢)한 신조』라고 공개적으로 단언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렇게도 유행하는 이 태도와 현대 종교생활의 그렇게도 큰 부분을 형성하는 완만(緩慢)한 사고 및 천박(淺薄)한 추리(推理) 때문에 우리의 논제는 가능한 최대의 중요한 논제가 된다』(Warburton: "Calvinism," 1955. 9, 12). 이는 현대신학계에 알미니안 주의가 성행하므로 칼빈신학의 부흥이 필요하다 함이다.

윤리사상의 방면에서 볼때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내는 것을 생의 최고 목적으로 삼았다. 인생보다 하나님을 사고의 중심에 두며 생활은 그것을 주관 하시는 창조주(創造主)와의 관계에서 조절 될것을 강조하였다. 칼빈주의가 현대인의 감정과 유리되어 있는 것이 이점에 서며 따라서 현대적 의의를 크게 가짐도 이 점일 것이다. 18세기의 복음주의적 부흥과 루소의 낭만주의(浪漫主義) 이래의 윤리는 개인의 선이건 전체사회(全體社會)의 개척이건 주로 인생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고찰되어 왔다. 인생의 현세적 요구가 소위 윤리적행동의 내용을 결정하였고 그 내용은 점점 순전히 물질적 행복에 관한 것이 되었다. 인본주의시대가 온것이다. 순전한 인본주의적 동행기 이외의 다른 동기를 보지 못하는 금일에 있어서 칼빈주의의 엄격한 규율은 극히 필요한 것이다. 개인과 사회의 행복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뜻을 준행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는 생활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다. (A, Dakin: op, cit, ch, XII).

벨코프(L, Berkhof)교수는 전기와 유사(類似)한 견해를 더욱 유력히 진술

### 칼빈의 現代的意義

하였다. 사상계(思想界)에 점진적(漸進的)으로 주권(主權)을 얻은 문명 부흥의 원리는 종교생활을 희생(犧牲)시켜서라도 세속생활을 역설함이다. 특히 지나간 세기에는 사람들이 자연세력을 발전하여 인생의 자인생활에 의존함에 크게 진보하였다. 그 결과로 사람은 자기의 힘에 도취(陶醉)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자립하여 자기로 하나님을 삼고 말았다. 그러는 동안에 도덕과 정신생활의 발전은 침체(沈滯)되어 인류사회의 많은 층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용소(容所)가 없어졌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발전한 것들을 무시됨하게 된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자통치(自統治)는 이제와서 질막적인 혼란과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고로 이런 때야말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그의 지도에 순종하기를 배우며 그의 성호(聖號)에 합당한 영광을 들릴 때이다.』(근년에 듣고 읽는 대로, 칼빈주의가 부흥됨에 따라 여러층에서 위대한 제네바 개혁자의 남겨놓은 교훈에 다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기쁜 소식이다. 칼빈주의의 원리는 개혁당시에 보다 금일에 더 필요하다. 『고로 우리는 칼빈주의 재강조(再強調)를 기뻐하는 바이다』(H, Henry Meeter: "The Basic Ideas of Calvinism," 1939, Fareword To The Second Edition," 박윤선 김진홍 공역).

헤드리·미러는 전단에 인용된 그의 저서의 한역(韓譯) 서언중에 칼빈주의의 현대적의의(現代的意義)를 사회적사상의 관점에서 말하였다. 『오늘날은 인류가 어떤 사상체계를 갈망하고 있다. 이 체계는 개인의 요구와 사회의 그것을 더 고귀한 통일에서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 고귀한 통일이란 것은 인류의 각 성원인 개인에게 최대량의 자유를 확보하면서 전체에게는 원만한 공의를 보장할수 있는 통일이다.』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를 갖도록 되는 때에 위에 말한것 같은 사상체계(思想體系)가 올수 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에게 대한 그들의 올바른 관계에 착근한 때에만 그들의 요구가 다 적당하게 만족함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칼빈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하여 준 위대한 사상이

### 칼빈의 現代的意義

다. 근년의 사회상태(社會狀態)는 도리어 칼빈의 이 이상을 부흥하게 하는 경향이고 칼빈시대에 당시의 사회개혁(社會改良)을 위하여 실시되었던 일을 금일도 할수있다는 소망을 새롭게 가진다.]

이런 몇가지 이유로 현대의 교회와 사회는 칼빈사상의 부흥을 요구하는 것이며 또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칼빈의 현대적의의(現代的意義)는 매우 밝히 들어나고 있다. 한국 교회에 있어서 절대다수의 신도들은 칼빈주의 신학의 감화 아래서 신앙생활로 살아온 것이다. 이들이 이 신학의 분위기(霧圍氣)속에 영적 호흥과 운동을 계속하는 동안 이 백성의 사회생활에 미친 영향도 적지아니 하였다. 그러나 금일 세계적인 사상적혼란(思想的混亂)의 선풍은 이 땅에도 불어온지 오래되어 진정한 칼빈주의에 배치하는 세력은 교계를 휩쓸고 있으며 사회에도 영향을 준다. 이리하여 금일 우리 앞에도 칼빈사상의 연구와 전파에 새로운 노력을 요구하는 정상(情狀)이 나타났다. 또 칼빈주의에 관한 역서들이 나오기 시작하여 우리의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본지의 이번호를 칼빈특집으로 하는 데는 상술(上述)과 같은 칼빈의 현대적의의라는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발전된 칼빈주의의 광범한 논리에 보다도 우선(爲先) 칼빈 자신의 생활, 사상, 사업의 고찰에 노력을 집중한다. 저 위대한 개혁자 신학자의 끼쳐준 모범, 교훈, 감화는 우리들의 심령생활(心靈生活), 교회, 사회에 다시 힘차게 활동하기를 축원하는 바다.

칼빈탄생 4백25주년 또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창립 50주년인 1934년에 본지가 칼빈특집을 발행하였던 사실을 우리는 기쁘게 회상한다. 그러나 근년 칼빈탄생 4백50주년 겸 우리교회 창립 75주년인 1959년은 교회정치파동(教會政治波動)으로 인한 교회와 신학교의 분열 때문에 혼란분주하여 속절없이 지냈던 것이다. 금년에 들어 이 칼빈특집을 내는것은 3년전에 못한 일을 소급(溯及)해서 함이라고 보아도 좋을것이다. 그리고 금년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창립 50주년이라는 사실은 이 특집에 좋은 의의를 부여 한다고 본다.

### 칼빈의 現代的意義

본지는 속간된 이래 경제적인 곤란중에 신음하며 부진(不振)상태로 수년을 지내왔다. 다행히 조동진목사와 김정국집사를 위시하여 몇몇 유지들께서 특별히 노력하신 결과로 '금호(今號)부터는 보다 더 견실(堅實)한 경제적 뒷받침을 가지게 되었다. 양 신학교합동과 교수진의 강화로 인하여 집필진(執筆陣)의 모습도 다소 달라졌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교적(敎積)의 배전(倍前)의 애교(愛顧)를 요청한다.

제네바 교회의 조직과 예배에 관한 제의서

이다. 대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를 따르려고 하는 것임으로 다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를 성공케 하실 것이요, 이러한 기도(企圖)를 성공적인 데까지 인도하시리라는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제위가 은총을 입어 주의영

광을 추구하려할 때에 이미 모든 일에 있어서 제위가 친히 충분히 경험하여 온바와 같다. 주께서 제위를 그의 능력으로 도우시사 모든것을 성공적인 결말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내적 교훈을 받은 사람은 성서안에 있는 것을 전적으로 승인한다.

다고 확신한다. 그것은 어떤 인간적 판단보다는 우월한 것이요, 그속에 있는 하나님 자신에 관한 직각적인 이해와 동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성을 필요로하지 않는 실복(說服)이며 최고의 이성의 지지를 받는 지식이다.

그리고 성서는 자체에 대한 증거와 학문을 가지고 있다.

과연 그기속 속에서는 다른 어떤 이성 속에서 보다 마음이 더 큰 안전성과 영구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끝으로 그것은 하늘에서의 계시 이외에는 아무것도 산출할수 없는 느낌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모든 신리가 그 마음속에서 경험하는것 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그것이 이성의 논증과 논정의 주제(主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단지 내가 사용하는 언어는 그 제목을 정당하게 해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봉인한 참다운 신앙이다. (칼빈지음 기독교 강요에서)

오히려 성서는 성령의 증언으로써 마땅히 받아야 할 신임(信任)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그 자신의 내적 위엄으로써 우리의 존경을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있는 성령이 확인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심각하게 영향을 주지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비침을 받을 때만 성서의 신적기원(神的起源)을 믿게된다. 우리 자신의 판단으로나 다른사람의 판단으로서 믿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람의 봉사관 봉하여 하나님 자신의 입에서 직접 받았

牧會者로서의 칼빈

김희보

목 록

1. 목회자로서의 그의 생애
2. 목회자로서의 그의 첫 주안점
3. 목회자로서의 그의 교회정책
4. 목회자로서의 그의 설교

서 론

칼빈의 활동은 하나의 종교개혁자(宗教改革者)요, 신학자(神學者)요 성경주석자(聖經註釋者)로써만 그친것이 아니라 개혁주의 교회의 조직자(組織者)였고 탁월한 설교자였음을 누구나 안다. 이 모든 밑에 있어서 그가 전세계에 천부의 예지를 발휘하였음은 만인이 인정하는 바이나 목회자(牧會者)로써의 칼빈을 생각하여 보는자는 극히 드문상 싶다. 하나님을 절대 경외함을 기초로 하는 그의 신본주의와 하나님의 지상주권과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율법에 한 통치를 근본으로 하는 그의 신학은 단순한 학(學)에만 그칠 수가 없었고 그의 신학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행복이요 또는 신기된 백성들의 생활에 적용 되어야 하는 원리가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 그가 신학자(神學者)로써의 큰 업적을 남길만큼 또한 목회자(牧會者)로써도 적지 않은 업적을 남긴 이유가 있다고 본다.

一. 목회자로서의 그의 생애

그것은 1936년 6월 3일. 그의 불후의 역작인 기독교강요(基督統綱要)출판을 보게 된 전후의 일이다. 많은 개혁동지(改革同志)들은 무참히 죽어 갔고

教會者로서의 칼빈

개혁파(改革派)안에는 기성세력인 구교(舊敎)를 대항할만한 조직적 이론도 단결도 없어 결국 개혁운동(改革運動)은 일대붕괴의 위기에 도달한 때였다. 카톨릭 로마 교회와 당시에 성행했던 신비주의(神秘主義)와 자유주의(自由主義)에서 기독교의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집필한 그의 저작인 기독교강요(基督敎講要)가 기독교역사상 획기적인 것으로 바로 이럴때에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 저작의 출판과 더불어 칼빈은 개혁운동의 핵심인물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신체의 건강을 잃게 되어 일시 아테리로 가서 당시의 개혁운동(改革運動)에 크게 동정한 그 나라의 공작(公爵), 페라리(Ferrara)부부의 도움을 받아 요양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얼마 후 다시 볼란서로 갔다가 바셀(Basel)에 가서 공부를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길을 떠나 도중에 잠깐 제네바에 들러 하루 밤을 지나게 되었다. 그 당시 제네바에는 파렐(Farel)이란 분이 개혁운동(改革運動)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기독교강요(基督敎講要)의 저자인 칼빈이 왔다는 말을 듣고 그 날 밤으로 칼빈의 숙소에 찾아 왔다. 그는 칼빈에게 제네바에서 같이 개혁운동(改革運動)에 참가하여 주기를 청원하였으나 칼빈은 자기의 계획이 따로 있음을 말하고 그것을 거절하였다. 당시의 제네바의 형편을 말하면 일시 성공적인듯 보였던 개혁운동(改革運動)은 강력한 카톨릭의 반격을 받아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른 때였다. 파렐은 칼빈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보내신 사자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당신이 당신의 뜻만 세우며 하여 우리의 애원을 들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신랄히 말했다. 칼빈은 심히 강직한 성품의 사람이 있으나 머무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 겸손히 순종하여 그의 청원을 받아 드려 제네바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때는 바로 그의 나이가 27세인 1536년 7월이 었다. 그때부터 칼빈은 당시 벌써 개혁자(改革者)들의 수중에 넘어온 성 베드로교회의 목회자(敎會者)로서 설교를 맡게 되었고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다. 이 때로부터 그의 목회생활은 시작 되었는데 그는 개필자(改筆者)로서 뿐만 아니라 또한 목회자(敎會者)로서 그의 풍

教會者로서의 칼빈

부한 조직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 었다. 여기에서 그는 지교회(支敎會)를 지도하기 위한 신앙개조(信仰箇條) (Articles of Faith)와 교리문답서(Catechism)를 작성하여 (주) 교회의 바른 노선을 지시했고 또한 엄격한 권징(勸懲)(Excommunication) 조례를 만들어 교회의 질서와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한 방침을 세웠던 것이다.

(주) 그때까지 제네바에는 신앙고백서(僑仰告白書)(Confession of Faith)라 할까 예배모범(Order of worship)같은 것이 있지 못했다. 파렐 자신은 그러한 것을 작성 할만한 분은 되지 못했던 것이다(Presbyterian Liturgies by C. W. Baird, P. 18).

에배에 있어서는 보다 더 은혜스럽고 경건스럽게 하기 위하여 전 회중으로 하여금 시편에 곡을 붙여 재창제 하였던 것이다.

(주) 칼빈이 오기 전까지 제네바교회에는 시편묵집도 없었고 예배 의식이란 것이 따로 없었다. 파렐이 실행한 것은 예배순서로 먼저 사도신경과 10계명을 다 같이 외우는 것과 설교에 앞서 주기도문을 낭독하거나 때로는 간단한 기도문이 있을 뿐이라 한다. 그러나 칼빈이 실행한 예배순서는 먼저 목사가 강단에 등단하기 전에 예배의 천주로 사기로 하여금 성경 중 및 구절과 10계명을 낭독케 하고 그것이 끝 나는데로 목사가 등단하여 예배의 선교와 동시에 곧 기도한다. 그 기도의 내용은 죄의 고백과 은혜의 간구 이었고 그것이 끝나자 곧 회중은 다윗의 시편중 하나를 다 같이 합창하고 목사가 다시 기도한 후 설교를 시작한다. 이 순서가 끝나면 목사의 긴 목회기도(敎會祈禱)(Prayer of Intercession)가 있고 다음 성찬예식(聖餐禮式)이 없는 때면 주기도문(主禱禱文)과 사도신경(使徒信經)과 속도의 순서로 예배를 마추게 되었다(同上 P. 21. f.)

무엇보다 먼저 그는 로마 카톨릭적인 잔재를 일소케 하기 위하여 회화(繪畵)며 초상(肖像)같은 것을 깨끗이 제거케 하였고 오직 신교하는 장로(長老)만 예배의 중심이 되도록 하였다. 전 예배의식(禮拜儀式)은 지극한 엄숙과 경건을 위주로 했고 성경적이며 순수 사도적(純使徒的)인 초대교회(初代敎會)의 방식을 모범하려는 것이 그의 목표였던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오직 성경교회의 의식을 조금 수정하여 본디거나 좀더 발전시키 본다는 이 같은 것은 전혀 없었던 것이요 전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순수한 성경적일 것이요

### 牧會者로서의 칼빈

적(使徒的) 초대교회(初代敎會)의 모범을 찾아 돌아 가려는 것이 그의 근본 방침이었던 것이다.

칼빈은 전심 전력 뜨거운 감격 속에서 기독교회를 바로 잡고 교인들을 옮겨 먹이려고 애썼다. 그는 무거운 침묵을 지키다가도 한번 입을 열어 진리를 변호할 때면 모든 회중은 물을 끼어 엮은듯 조용해 졌다는 것이다. 드디어 제네바에서는 로마 카톨릭의 세력이 일소되고 개혁교회의 새로운 정신이 온 교회와 전 시민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철저한 신앙 개조(信仰個條)와 신앙적 훈련(信仰的訓練)을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었다. 처음같은 환영은 점점 받지 못하게 되었고 2년 후에는 드디어 반대와 배척을 받아 마침내 군중들과 의원(議員)들에게 추방 되게 될 때에 그는 이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제네바를 떠났다. 그때 그는 독일 스트라스버그(Strassburg)에 있는 친구 마틴·부셀(martin Bucer)의 초청으로 피난민들(불란서로 부터의)을 위한 목사로 그곳에 파임했다(1538년). 그때의 스트라스버그는 개혁자들의 망명지로 특정지역(特定地域)같이 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철저한 개혁주의자(改革主義者)들만 모여온 개혁파(改革派)의 센터가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일반 교회를 조직하여 신자들을 교양하며 성경을 가르치고 시편을 작곡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후 칼빈을 추방한 제네바의 형편은 거의 다시 무정부상태(無政府狀態)로 돌아갔으며 대중은 목자 잃은 양 같이 되었고 교회는 카톨릭의 세력에 다시금 인멸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 일을 수사할 자는 오직 칼빈 뿐임을 알게 되어 다시 그를 불러 오기로 결정했다. 칼빈은 제네바로 부터의 재차의 초청을 받았을 때 이 역시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곧 허락했다. 그것은 그가 그곳을 떠났었던 3년후인 1541년이 었다. 여기에서 다시 그는 제네바 개혁교회(改革敎會)의 목회자로 재 출발하게 되었다. 그후 그는 제네바에서 전후 20여년간의 목회자(牧會者)의 생활을 했는데 그러던 그의 목회자(牧會者)로서의 그의 주안점은 무엇이었으며 그의 교회정책과 목회자로서의 그의 설교의 방법은 어떠 했던가.

### 牧會者로서의 칼빈

#### 二 목회자로서의 그의 첫 주안점

목회자로서의 칼빈의 첫 주안점(主眼點)은 무엇 이었던가? 이 문제는 그의 교회관(敎會觀)과 분리시켜 생각할수 없는줄 안다.

다른 개혁자들과 같이 칼빈은 이미 성 어거스틴이 간파한 유형교회(有形敎會)와 무형교회(無形敎會)를 구별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이 양자는 불가분리의 것이었다. 무형교회에 이르는 정상적 길은 오직 지상의 유형교회라고 했다. 그는 신자들로 하여금 천적 지성소(天的至聖所)라고 할 수 있는 무형교회를 직접 영망(迎望)하게 하고 지상에 있는 유형교회는 그의 외정(外庭)으로 비유했다. 칼빈은 이사야 37장32절과 요엘 2장 32절을 예증하면서 유형교회의 몸을 떠나서는 정상한 구원의 방편을 찾을 길 없다고 말했다. 기독교강요 제4권 제1장 4항. 여기에서 오히려 루터파에서는 비난하기를 칼빈은 교회론(敎會論)에 있어서 카톨릭화 하고 있다고까지 했다. 그러면 칼빈이 이렇게 강조한 유형교회(有形敎會)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그는 말하였던가. 칼빈은 루터와 한가지로 말하기를 유형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 되어 전파 되는 곳이고 복음적(福音的)인 성례(聖禮)가 옮겨 배풀어 지는 곳』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한 길을 더 나아 가서 이 양자와 함께 교회의 특수기능으로 신자들의 신앙상 훈육을 위한 권징(勸懲)이 옮겨 시행되는 곳이라고 하나 더 첨가해 말했다. 여기에서 칼빈의 교회에 있어서의 그의 세계의 첫 착안점(着眼點)을 밝힐 수 있는 줄 안다.

첫째는 교리에 치중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앞서 논한바와 같이 그가 제네바에서의 첫 목회(敎會)의 길을 밟을 때에 먼저 한 일은 신앙고백서 신조(信條)의 작성이었던 것이다. 그가 이렇게 신조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은 교회중에 각종의 교리적 차이가 있어 그 정사(正邪)를 분별하기 어려웠던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신자들의 신념(信念)의 고백(告白)을 확실케 하기 위하여 함이요, 통일된 증언(證言)으로 신도 상호간의 지체적 연결을 굳게 하기 위함이었다. 칼빈은 교회의 첫 사명이요 목회자(牧會者)의 첫 본무(本務)는 교인들로 명목상의 교회원(敎會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

심을 기우려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고백자(信仰告白者)가 되도록 보증(保證)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에딘바라」 대학의 교수(G.H.S. Burleigh)는 지적해 말했다. 신학지남(神學指南) 제3권 제2호 『장로교회의 유래 원재; 참조(What is Presbyterianism)』

오늘 날 교리라고 말하면 흔히 신학자(神學者)들의 협소한 아량 없는 주권 같이 생각하는 자도 있으나 그가 말하는 교리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眞理)의 체계화(體系化)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작성한 신앙고백서(信仰告白書)란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조(信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조(信條)라기 보다는 오히려 신학체계(神學體系)와 같이 보였다. 칼빈에 의하면 신학(神學)이란 것은 성경의 해설에 불과했다. 그는 기독교강요(基督教綱要)의 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자기 스스로는 성경석의자(聖經釋義者)의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처했다. 그의 신구약(新舊約), 거의 전성경의 주석들은 그의 이 말을 잘 입증하여 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목회(牧會)에 있어서 교리에 치중하였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치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칼빈에 있어서는 성경의 강론(講論)인 설교없는 예배는 완전한 예배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칼빈은 예배의 중심으로 설교를 삼았던 것이다. 성경을 강론하여 기독교의 복음적교리(福音的敎理)로써 신자들을 무장케 해야한다는 것은 또한 그의 목회의 첫 주안점(主眼點)의 하나였다.

둘째의 그의 주안점(主眼點)은 모든 성례의식(聖禮儀式)에 있어서 비 복음적요소(非福音的要素)를 제거하고 간소화시키며 동시에 예배(禮拜)의 의식(儀式)을 회중화(會衆化)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는 루타파나 영국 앙글리칸과 보다는 더 과격하게 과거의 모든 예배의 전통적 형식을 버렸다. 교회의 모든 장식들은 우상숭배(偶像崇拜)의 흔적이라 하여 모두 벗겨버렸다. 예복(禮服), 예전(禮典), 예식(禮式) 등은 모두 최소 한도로 축소시켰다. 제사(祭司)가 혼자서 예배드리고 회중은 그저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든 예배의식(禮拜儀式)을 떠나서 쉬운 곡조로 다 같이 시편을 합창하는 것으로 예배의식

을 바꾸었다. 미사(Mass) 대신에 교인들의 성찬배수(聖餐拜受)가 대치되었다. 칼빈은 주일 예배때마다 성찬예식(聖餐禮式)으로 예배의 종결을 살으려 생각한 듯 하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좇아 년 4회로 축소시켰다. 이것은 성찬식(聖餐式)의 가치를 과소평가 하여서가 아니라 성스럽고 엄숙한 특별예식(特別禮式)이어야 한다는 의견 때문이었다.

셋째의 주안점(主眼點)으로써 그는 교인들의 신앙훈련(信仰訓練)을 위한 권징(勸懲)의 시행에 힘썼다. 칼빈은 모든 교인들에게 신앙의 고백뿐 아니라 일정한 도덕생활(道德生活)의 표준을 요구했다. 인간의 최대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신자들로 나타내게 하고 또 신자들이 자기들의 생활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발견케 하기 위해서는 신앙과 도덕의 엄격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목회자(牧會者)의 임무요 교회(教會)의 사명(使命)의 하나는 교인들로 하여금 성결한 자리에 절정되 나아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는 교인들의 도덕적 훈련을 위해서는 권징과 목회적(牧會的) 권고로 할 것이요 권징(勸懲)을 최초의 수단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권징(勸懲)의 시행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게 했고 이 권징(勸懲)은 목사와 더불어 경건한 장로들에 의해서 시행 될 것이라 했다. 경건생활(敬虔生活)의 훈련을 위해서는 의식주의 사치를 금하며 도박이나 댄스는 물론이요 연극과 숙된 오락까지라도 일체 금지했다. 거짓 말이나 욕설 같은 것은 물론이요 불경건한 언사도 금하게 했다. 어떤 사람은 나귀의 우는 소리를 듣고 농담삼아 『내가 좋은 찬송을 하는구나』하는 말을 한 이 유로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 까지 있다.

그가 제네바에서의 전후 20여년간의 목회자로써 이 모든 주안점(主眼點)을 실천해 본 것은 효과가 있어서 제네바의 교회는 변화되었으며 도시 자체도 도덕적으로·속명적으로 개편되어 영적 도시(靈的都市)로 화하였다. 저금까지도 칼빈주의를 따랐던 소격란(蘇格蘭)이나 화란(和蘭)같은 나라가 루터교를 따랐던 북구제국(北歐諸國)보다 도덕적 수준이 높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닐 줄 안다.

### 三. 목회자로서의 그의 교회정치

교회개혁자(教會改革者)중 루터는 교회의 정치(政治)를 정부의 손에 위임하였지만 칼빈은 정치적 세력으로 부티의 교회의 독립을 위하여 노력했다. 그는 이 점에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의 원리에 의하여 국가의 정치도 운용되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가 교회 정책의 근본 착안점으로 생각한 점은 곧 유형교회(有形教會)가 참 하나님의 교회로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정책이 하나님의 말씀에 시현(示現)된대로 되어야 할 것이요 둘째는 사도적(使徒的) 초대교회의 모범으로 돌아가자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이었다. 이 근본적원리의 실현을 위해서 교회의 직원(職員)은 네 가지로 규정했는데 목사(牧師)와 교사(敎師)와 장로(長老)와 집사(執事)가 곧 그것이였다. 칼빈이 이 4직위(四職位)로 교회의 직분을 정한 것은 교회의 생활과 기본사업(基本事業)을 ① 말씀의 전파요 예배 및 성례(聖體) ② 종교교육(宗教敎育) ③ 권징(勸懲)의 집행 ④ 병자와 빈자의 권고와 재정 관리의 4분 될 필요를 생각하였기 때문인줄 안다. 이상의 4직분중에서 목사는 유형교회(有形教會)의 근본적인 사역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召命)을 필수로 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했다. 당시 제네바에는 5인의 목사가 있었는데 그 목사들과 신학교(神學校) 교사들과 지방의 교사들을 합하여 성교회(聖教會)를 조직하고 이 회를 통하여 교회의 모든 일을 의논하고 신학교(神學敎習)과 예배관리(禮拜管理)와 목사후보생(牧師候補生)의 심사와 교리문제(敎理問題)등을 취급케 했다. 이 집합은 매주 일차씩 열려 피차의 문제의 해결과 의견의 교환이 있었다. 이밖에 또 목사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감독원(監督院)을 두고 일반인들의 도덕생활을 감독지드케 했다. 예배는 오직 신령과 진리로만 하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앞서 갈한 바와 같이 초상이나 회화같은 것을 일체 금하였다. 16세 이하의 청년들은 예배외에 종교교육의 시간을 정하여 성경과 교리문제(敎理問題)(Catechism)의 철저한 교육을 받게 했다. 16세 이상이 되어 성찬(聖餐)에 참여하게 되면 평신도로서 완전한 권리를 얻게 했다. 특별히 칼빈은 4신약(四新約)성경에 일관하는 언약의

교리(敎理)에 근거한 유아세례에 치중했고 세례를 베풀 때는 양친에게 엄격한 교훈을 하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곧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삭의 하나님은 또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야 함 같이 부모의 신앙은 곧 자녀들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언약 교리의 핵심이었다. 믿는 가정의 자녀가 부모의 축복에 동참한 다는것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는 부모에게 무거운 의무가 있음을 그는 강조 했던것이다.

칼빈의 교회정치체제(教會政治體裁)는 민주정치적인데 그 특색이 있다. 그리스도의 주권은 군주정치적(君主政治的)이나 지상의 교회는 민주적 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성경적인 바른 견해로 보았다. 감독정치(監督政治)를 사용하는 교파에서는 예수께서 12사도(十二使徒)를 선명하시길 떠나 70문도(七十門徒)를 파송하실 때의 쓰신 방법을 본받은 것이라고 자랑 하였으나 칼빈의 견해는 사도들이 사도(使徒)의 결원 된 것을 보충할 때나 (행: 17~26) 집사(執事)들을 선임할 때에 (행六 5.6) 쓴 방법으로 교회의 기준을 삼을 것을 말했다. 감독정치(監督政治)를 사용하는 교파에서는 즉 자랑할 필요가 있다 할찌라도 인간으로써 감독이 되어 예수의 머리 노릇을 한다는 것은 압만해도 로마 카톨릭의 잔재적요소로 인정할 수 밖에 있다는 것이 그의 사상이었다. 그러므로 칼빈 주의자(主義者)들은 목사나 장로가 교회를 지도하며 처리하는 것은 그 권한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명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모든 신자들에게서 투표로 위임받았다는 것을 알아 먼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 신자들에게 전심 전력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코 교직자(敎職者)들은 그리스도의 대행자로 교인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의 입장에서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 칼빈의 뒤를 따르는 자들의 생각이였다. 이 근본정신을 잃게 될때 교직은 오히려 교회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 이 민주행정(民主行政)이야 말로 불완전 한대로 지상교회(地上教會)의 가장 좋은 정치방법임을 칼빈은 인정했다.

### 四. 목회자로서 그의 설교

칼빈의 목회자(牧會者)로서의 설교활동은 그가 스트라스뵈에 있었던 3년간



敎會者로서의 칼빈

파 (1538~1541) 제네바에 돌아 와서의 전후 약 20년간의 일이었다. 그의 설교는 어디까지나 강해설교(講解說敎)이었다. 그는 전 성경의 말을 고르게 해설하며 설교하는 것이 합당한 줄 알았다.

그는 설교방법에 있어서 루터와 같이 열변은 아니었다고 하나 그의 정밀(精密)한 논리적 전개(論理的展開)와 깊은 무게 있는 내용은 많은 청중에게 감화를 주었다.

그는 항상 설교에 있어 성경해석(聖經解釋)에 힘썼으나 어떻게 청중에게 영적감화(靈的感化)를 줄 것인가 하는 점에 애썼다. 그는 말하기를 설교자(說敎者)가 성경만을 해석(解釋)하고 청중(聽衆)의 감화(感化)를 저중치 아니하면 그 설교는 죽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말하기를 『청중이 이미 아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다만 청중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말함이 좋다』고 했다. 그는 청중의 감화(感化)와 회개(悔改)를 위해서는 대중의 성질과 형편을 잘 살피서 거기에 적합한 어법(語法)과 비유(比喩)를 택했다.

그가 또 언제나 설교에 있어 잊지 않은 것은 청중을 위로(慰勞)하며 권면(勸勉)하는 성구의 적당한 인용 이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가 설교란 것은 회중에게 감화(感化)를 주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救援)하는 방편인 동시에 또한 회중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큰 역할이 있어야 함을 생각한 때문인 줄 안다.

參考文獻

Henry Sterbing, The life and times of Calvin, London, 1849  
A. Hyma, The life of Calvin, Grand Rapids, 1942  
T. Hoogstra, John Calvin, Contemporary Prophet, Philadelphia 1959  
E.C. Dargan, A History of preaching, Grand Rapids 1957  
Charles W. Baird, Presbyterian Liturgies, Grand Rapids, 1957  
John. G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英譯) Vol. 2 (Bookfourth)

신학저널 제16권 제4호 (1934. 7)

요한 칼빈의 설교

聖經을 正當하게 使用할것

딤후 3·14~17

명 신 홍 譯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검이라고 하였으니 우리는 이것으로 무장을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마귀는 우리를 속이며 죄에 빠지도록 유인하면서 계속하여 우리를 대적하며 싸우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성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존중히 여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만큼 우리는 마땅히 쟁론할 것 없이 그 말씀에 굴종(屈從)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존경하며 순종함으로써 수납(受納)해야 할 다른 한가지 이유다. 언제든지 어떠한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어서 비록 저들이 마땅히 반대함이 없이 받아들여야 할 것을 도리어 부정함으로써 스스로 수치를 당하면서도 타인으로 하여금 성경을 의심하게 하였다. 또 언제든지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존엄한 것임으로 전 세계가 마땅히 그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때면(倏然)히 고백하면서도 계속하여 하나

님을 모독하며 그를 대하여 악한 말을 한다.

출법과 선지서와 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없다면 어디서 말씀을 찾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경배할 수 없다. 만일 위하여 바울은 가르치기를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그에게 순종하려던 만드시 그 율법과 선지서도 포함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 사람이 자기의 기뻐하는 대로 다루면 대하여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그는 만민기를 모든 성경은 다 존엄성을 가졌으며 다 유익한 것이라고 하였다. 간단히 말하면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기호(嗜好)에 따라서 선택하여 어떤 부분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그 진부를 수납(受納)하지 않으면 안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바울이 말하는 여기에서 성 바울의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으니 그것은 그가 성경이라고 말할 때에는 구약에 그가 인용하고 있는 것

성경을 정당하게 사용할것

이나 다른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이 저술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던 사실이나 그러므로 율법을 무용(無用)한 것으로 제지하고 다시 이에 관설(關說)하지 않는 자들은 옳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없다. 저들은 회당 또는 주막에서 "우리는 율법이나 선지서나 그 어느 것이라도 더 수납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으로 자주 말하는 격언을 삼았다. 이런 말은 탈르인들 간에서 와도 같이 저들에게서도 보통으로 흔히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성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억제하며 우리에게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입증(立證)하려 하면 반드시 율법과 선지서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의 생활을 조정(調整)해야 하며 반드시 이것은 영구불멸의 진리임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소거되거나 변할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동안만 유호하도록 일시적 교훈으로 주신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은 천재에 시행(施行)되며 또 불구에 세계가 명망하고 찬사가 없어질 지언정 그 권위는 상실(喪失)되지 않을 것이다. 성 바울의 뜻하는 바는 우리가 성경으로 말미암아 지배됨을 감수하고 또 성경외에 다른데서 참된 지혜를 찾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수있다.

그는 우리가 목록을 정하고 그대로 선택할 자유를 주지 않고 성경에 포함된 내용을 그대로 시인하면서 모든 편에 있어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

하고 있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미도 말한 바와 같이). 이제 우리는 여기에 진술된 이대요점(二大要點)에 주의하자. 그는 첫째로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묵시로 말미암아 주신바"라 하였고 다음으로서는 "유익한것"이라고 부가(附加)하였다. 성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사랑하도록 대하여 또한 크게 겸비함으로 이것을 받아야 함을 가르친다.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묵시로 말미암아 된것이다 함은 죽을수 밖에 없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능하신 권능을 지배하려는 노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비참한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며 그 성경을 승인하기를 거절할 것인가? 이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것이 아니며 성 바울은 말하기를 그안에는 땅에 속한것은 없다고 하였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하는 자가 되지 않고 또한 그를 무시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성경에 대하여 굴복하지 않으려 안된다. 그 다음으로 성 바울은 가르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敬畏)함으로 존경할것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유익과구원을 얻도록 하신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익한 것을 위하여 노력하기를 원치 아니 하실이라는 것을 반드시 고백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어떠한 유익을 얻을수 있도록 선택하고 또 우리에게 적합한 것 만을 포함한 것임을 깨닫게 될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거

성경을 정당하게 사용할것

저주신 축복을 감수(甘受)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이 될것인가! 성 바울은 하나님의 존엄하심이 그 가운데 나타남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높은 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임을 알면서 성경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도록 원하는 애모심(愛慕心)과 욕망을 가져야 할 것을 가르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심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음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모세나 그 외의 어떤 선지서를 죽고 없어진 인간의 역사로 알고 읽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분발시키는 생명의 역사(役事)를 느끼게 되는가 아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 바울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靈感)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을 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말씀하심을 알기까지는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 생명도 없고 힘도 없는 것이 된다. 범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구실 또는 덮호물(掩護物)로 삼으면서 자기가 말한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자궁함으로 전세계를 속였으며 또한 처음부터 성경을 알지 못하게 한 것을 알 수 있다. 거기에 위훈(僞勳)의 독소(惡素)가 없을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는 그의 영광스러운 구호하에 숨겨 가지고 이것을 금배(金盃)에 담아 두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배됨을 만족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은 곧 인증(印證)함을 얻게 될 것이므로 이것이

사탄의 망상도 아니며 어떤 사람의 발명 한 신화도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성경에 포함된 모든 것은 다 그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믿는다.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경멸히 여기도록 저들의 무지함대로 무시면서 그의 진리를 우리의 심중에 인종화시키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부한히 선하심을 사해한다.

우리는 성 바울의 교훈중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로 보호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권위도 없음을 말하는 것은 그의 여러가지 교훈을 보아서 알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교훈을 승인 하려면 이것은 반드시 사람의 권위나 지대로부터 빌려온 것이 아니어야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온것임을 먼저 알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한가지 주목할 만한 요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의 백성인 여부를 증명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에게로 부터 온것 외에는 아무런 법이나 규를 가지지 않았으므로 그는 진실로 우리의 유일하신 왕으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는 그의 명령을 복종하는 자들이므로 우리의 영혼은 어떤 우열한 무엇으로 인하여 일요함을 받을 수 없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바로 우리가 항상 어떤 형식적인 무식을 말한단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된 것 뿐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 하심을 증명할 수는 없다.

성 바울은 성경이 의심할 여지없는 진리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도세가 우수한 사람이었던 것을 가르치지 않으며 이

### 성경을 정당하게 사용할것

야가 대단히 웅변적이 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저들 자신의 신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무것도 선언하지 않고 그는 말하기를 저 들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기구이었으며 저들의 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도함을 받았으며 자신들을 위하여 말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저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것 뿐이라 한다. 우리는 저 들을 영감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이며 저들에게 말해진 진리의 충성스러운 청지기였음을 알아야 한다.

만일 이러한 것을 다 바로 관찰한다면 금일의 저 로마 교도들과 같이 무서운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저 들의 신앙은 사람 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면 어디다 기초를 둔 것인가 저 들의 소행중에 외식에 또 무엇이 있는가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사실이나 동시에 저 들 자신의 의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성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기초를 성경에만 국한하기를 요구한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가 모든 인간의 권위를 배제(排除)하여 무엇이든지 구별할 것 없이 모든 피조물 위에 우월권을 가져야 할 것이며 저들은 필히 그 앞에 굴복하여야 할 것이고 또 그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을 감행하지 않아야 할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강단에 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을 확인하고 그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책까지를 말해야 한다.

말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것이 다 경솔하게 자기뿐 믿지 말며 자신을 무엇으로 비봉(彌縫)하지 말며 하나님의 진리를 순결하게 공표(公表) 할 것이고 필히 그의 교훈이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그 백성의 건덕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사람의 교훈은 배제 하여야 할 것임을 이해하고 이것이 다시는 용인되지 못하도록 이것을 교회에서 추방하자. 우리는 조심하여 복음의 단순한 것을 고수(固守)하자. 우리의 주께서는 은혜로우사 그의 뜻을 율법과 선지자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셨으니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을 굳게 지키고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양심을 구속하도록 용인하거나 저들 자신의 가진 관념대로 신조를 조성하지 못하게 하자.

성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다 유익한것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힘써 연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감사를 알지 못하는 행위가 된다. 우리 중에 유익한 것과 구원을 원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는가, 성경밖에 어디서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있는가, 만일 우리가 오직 우리의 행복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관념이나 좋아하는 정서를 지지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지 말고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으로 그 모든 내용을 찬동하면서 거기에 포함된 교훈에 복종하도록 하여야 한다.

내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듣는 사람들이 그 교훈으로 인하여 유익을 얻을수

### 성경을 정당하게 사용할것

있으며 또 교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만일 내가 이러한 의문이 없시들은 사람들을 교도하지 못한다면 독신죄(瀆神罪)를 범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신성을 더럽히는 것이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려고 오는 자들도 만일 저들이 어떠한 우대한 사색을 탐구하거나 휴식을 위해서 온다면 이것은 복음의 신성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길에 서서 변전하여 이로 인하여 유익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어떠한 문제거나 찾아 내는 것으로 일삼는다면 우리는 또한 이것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

성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과 구원 외에는 원하시는 것이 없음을 알고 우리는 열렬한 소망을 가지고 그에게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성경을 우리의 상상에 맞게 취급함으로써 이것을 더럽혀지 않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유익함을 일게 하심인줄 알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유익한 것이 무엇임을 배우려고 성경으로 돌아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유익한 것이란 무엇인가를 각별히 음미(吟味)해야 할 것이 남아있다. 만일 성 바울이 이 한말단을 말했다면 그의 의미가 어느 정도에 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그와같이 경이하게 진격하였으므로 우리는 그의 뜻하는 바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함이니라" 하였다.

성 바울은 성경의 단일한 사용을 뜻하는 것으로 가르치지 않고 그가 교훈을 말할 때에 이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익함을 첨가 하였다. 왜 그와같이 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이 무엇임을 보여주시므로만 족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같이도 냉담(冷淡) 함으로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인 까닭이다. 그러므로 그는 반드시 우리에게 열심을 촉발케 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는 필히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알아야 하며 또한 이것을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성경에는 좋은 교훈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에는 우리를 분발케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책망과 바르게하는 것이었다.

성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교훈을 위하여 유익하다 하고 다음으로 책망과 바르게하는 것들을 부가(附加) 하였다. 왜 교훈이 단말로 시작하였는가, 이것은 자연스러운 출서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먼저 배우지 못하면 이 면도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선하고 참되며 옳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여기의 교훈이란 말은 우리가 반드시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야 하던, 이를 온전히 숙고(熟考)하고 또 이로써 교도함을 받음으로 그 권위를 의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성 바울은 이 교훈이란 것은 어

### 성경을 정당하게 사용할것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근신하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살아 가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나갈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를 신뢰(信賴)하고 거기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하늘에 속한자로서의 생활을 지속하며 반드시 우리의 악한 성질을 죽이고 의를 좇아야 한다. 복음의 교훈이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의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되심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고 모든 죄를 깨끗이함을 얻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대언자로 정하신바된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때에 그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줄 알면서 기도할수 있는 확신이 생긴다.

우리가 우리에게는 죄와 악한것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미워하며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성경에 포함된 교훈이다. 우리는 반드시 성바울이 책망에 관하여 말하는 그 뜻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것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학교에서 잘배웠으면 반드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심중에 애통하며 우리의 허물을 자책하게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할 때에는 신실한 선도들이 배강함을 얻을 뿐 아니라 만일 어떤 불신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

훈을 들으면 그는 책망을 받고 심판을 당하게 된다. 저 불신자가 비록 암흑중에 싸여 있으며 그의 무지함을 따라 기뻐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금일까지 살아오는 중에 그 비참하고 악한 것과 현재 그의 가련한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추어심으로 그는 하늘이 열린 것과 사람은 진실 생활을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보다 더 높은데 올라가기 위한 인줄 알게 된다. 그리하여 불신자는 가책을 받게 된다.

이것을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성 바울은 마음의 비밀을 드러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졌을 때에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용심(用心)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이두숨에 싸여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실용적으로 적용하고 또 우리의 잠을 깨쳐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영혼의 구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곳을 살피고 또 우리의 생활전체를 살피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불결한 것을 부끄러워 하고 또 하나님의 손에 준비되어 있는 경외를 면하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심판주가 되어야 한다. 이로써 성 바울의 책망이란 말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임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앞에 두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함으로만은 족한 것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성심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경성(驚

### 성경을 정당하게 사용할것

醒)하여야 하고 또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피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도록 부르신것같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지루하신 빛에 비추어 우리의 모든 악한 경의를 부끄러워하고 또 우리가 하늘의 공기를 마시게 될때에는 반드시 그의 의로운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명심해야 한다.

그와같이 책망함으로만 족한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일이 반드시 부가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마침내 개선되기까지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버려야 한다. 우리는 이것이 뿌리채 빠지고 또 우리에게서 분리되기까지 반드시 엄하게 취급함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각성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앞에 심판을 당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될때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같이 죄를 범한것을 깨닫게 된다. 그럴뿐 아니라 우리는 강압적으로 어디로 끌리워 감을 당하게 되기도 한다. 만일 우리가 마미의 식품에 취(醉)하거나 음란한 일과 허화(虛華)한것에 빠져들어가며 이로 인하여 유혹을 당하면 그 바르게 하는 일이 급하고 엄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또 그가 우리를 개선케 하고 또 그의 뜻에 굴복케 하시기 까지 감내(勘耐)하게 된다.

어떤 부친이 그 아들이 불법 또는 부도덕하게 영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왜 내가

그와 같이 하느냐 함으로 족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는 말하기를 아 친한 인간아 내가 너를 기르고 지금까지 양육하였는데 이런것으로 내게 갚느냐 내가 너를 그와 같이 은화하게 길렀는데 너는 나에게 이와같이 불경스럽게 대하느냐 너는 목을 매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것이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다. 불순한 자식이 부모를 거스리는것보다 더욱 하나님께 반역 하는것을 보실때에 그가 우리를 향하여 분노한것이 기회가 아닌가 그에게 어떤 경계를 내는 열정이 있는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에게 굴복하고 또 순종함을 배우기까지 열성을 내시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누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마치 이것이 단순한 역사인 것과 같이 말하는 것이 족한지의 여부를 판정하자 만일 그렇다면 지금 성 바울이 이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것은 유익이 없다. 그는 말하기를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족하고 신실한 목자의 임무는 단순히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필히 하나님의 말씀에 힘과 초능을 나타 내도록 하며 열성과 엄중한 것을 들어 내어야 한다. 성 바울이 다른 곳에는 말하기를 그의 목자들은 혹은 무례하게 보이는데 마치 이물지라도 반드시 열성이 있어야 하며 또 백성들의 선한것만 말 할것이 아니라 저들을 책망도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반드시 사순절과 인내함으로 해야 한다고 한것은 완전

성경을 정당하게 사용할것

말이다. 그러나 어떠한지 바르게하는 일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감당하기에 너무도 어려운 것이니 당신은 이와같이 취급할 것이 아니라고 해서 안된다. 사람을 바르게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 밖에 다른주인을 찾을 것이다. 저희는 그의 말씀을 들을만한 가치가 없다. 이 세상 사람은 아끼주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은 저희가 위압(威壓)과 바르게함을 당할때에 분노함으로 넘치게 된다. 저희는 말하기를 우리는 유순함으로 선포케 하여 주기를 원한다고 한다. 저희들을 마귀의 학교로 보내라 그는 아무말것이여 마침내 저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나 신실한자들은 저희가 교훈을 들은 후에 반드시 스스로 겸비(謙卑)하고 또 자기를 제방하는 것을 들기원 한다 저들이 파오를 범했을 때에는 반드시 경고함을 받아야 하고 저들이 모든 불결한데서 깨끗함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저들의 죄와 범죄함을 인하여 책망을 받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기 원하면 반드시 이와같이 행하여야 한다.

성 바울은 다시 더 부끄러움을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라고 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할때에 우리가 사람의 안찰할 것을 존경함으로 의로워질수 없음을 보여주면서 사람이 의를 성취한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폐쇄하여 버렸다.

우리는 로마교도들이 무엇이든지 사람으로 인하여 저들에게 명한것을 지키면서 헛되게 저희 자신들을 괴로움게하는 것을 알수있다. 저희들의 의는 어떻게 성립되는 것인가, 이것은 무엇에 기초한 것인가, 저희가 기초한것은 강대한 지휘권을 가진 그 교회이다. 그러나 성 바울은 성경에 포함된것 외에는 종교나 교리가 없음과 그 안에만 의가 있음을 가르친다. 그렇다면 저희가 하나님의 명하신바 대로 따라가는 것인가, 아니다 저희는 이것과는 전적으로 반대편으로 가고있다. 그리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생활의 바른 방향을 취하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대로 따라가자.

만일 우리가 성경에 포함된 대로 우리의 생활을 정돈하면 우리가 이로 인하여 의로워 질것이다. 그러나 인간들의 교훈은 우매한 것 뿐이며 하나님 앞에 가증(可憎)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성 바울이 "의로 교육하기에"라고 말하는 것은 이유없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자 그는 다시 우리가 선한 일꾼이 되려면 반드시 저룩하게 생활해야 함을 깨달으라고 권한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것은 어떻게 말할것을 가르쳐 주거나 우리를 웅변적이며 예혹(銳惑)하게 만들기 위하여 주신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뿐 아니라 초신하여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음으로 인하여 유익을 얻은 여부를 알고자 하면 우리는 그의 생활을 주목하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런

성경을 정당하게 사용할것

지를 알수 있고 경건생활에 대하여 훌륭한 고백을 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저희의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다.

성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종교자를 삼아야 할것과 우리가 정직하게 행해야 할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활을 육성해야 할것과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해야 할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우리는 반드시 의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 인간의 고안한 것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배척(排擯)해야한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진 관념대로 하나님을 짐기기를 원하며 또 이것을 가지고 계산에 넣으며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성 바울은 분별력 없는 용기가 사람의 심중에 있는것과 저들이 저들을 위하여 정하신 그 경계선을 지키게 못할것을 알고 그 병상을 지적하며 병고침을 받게하기 위하여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면 우리가 정직하게 생활할 수 있을것이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였다.

사람들이 저희의 하는 일이 도덕에 합하고 또 저룩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으나 저희가 하늘 위에 계신 삼관주 앞에 나타날 때에는 모든 것이 겨와 같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고안한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과 섞을 때에는 모든 것을 훼손(毀損)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이 위조한 것은 다 부패

한것 뿐이라고 우리는 단정한다. 로마교도들은 성자의 소제시(符號時)에 음식하는것, 금요일에 육류를 먹지 않는것, 사순제를 지키는것, 성자를 경배하는것, 이 제단에서 저 제단으로 혹은 이 예배당에서 저 예배당으로 돌아다니는것, 미사에 참지(參詣)하는것, 순례하는것 등을 다 선행이라고 부른다. 저희가 그렇게도 많은 법과 규칙을 관함었으므로 누가 그것을 다 알 수 없다. 그러나 로마교도들은 반드시 그로신 삼관주 앞에 나타날 우리의 행한바를 자에게 진술하게 할것이다.

만일 우리가 성경으로 인하여 유익을 얻으면 우리는 모든 선한일을 위하여 예비함이 되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는 저 로마교도들의 진설과 말명으로부터 유래한 것은 무엇이든지 저희는 인간의 진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충분히 이용하고 있다. 우리는 이로 인하여 완전한데 나갈줄 생각하면서 자원하여 스스로 속지말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성경에 가입하는 것을 막으시오 또 그런것은 후에 돌아오며 그에게 수납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공연히 저들의 혼계조장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것은 저들이 받아야할 정죄를 배가(倍加)하는것 뿐이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율법과 선지자의 그와 같이 공정한 것이 많은게 복음의 옹치는 무엇인가 이것은 답하기에 어려울 것이 없다. 복음은 율법이나 선지자의 무엇을 더 가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악을 들어보자 우리는 한마디

성경을 정당하게 사용할것

의 말이라도 더한것을 찾을 수 없다. 이것은 전에 이미 가르친것을 더 평이하게 진술한것 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살던 족장들에게 대한것 보다 우리에게 더욱 은혜로우신 것은 사실이다. 비록 더 가일한 것은 없다 할지라도 사물을 더욱 명백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성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에게서 공정한 것과 완전히 의로운것을 찾는다 고 한 것은 복음을 저하시키는 것은 아니다.

신구약을 통하여 성경에는 일치 조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도들에 의하여 율법에 포함된 교훈이 그와 같이 간곡(懇曲)하게 해석 되었으므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것은 이것이나 혹은 저것이나 할 수 없다. 우리는 처음부터 명확한 신것으로 우리 자신들을 재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그와 같이 명백한 말로 알게 하였고 또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할 여러가지 이유를 가르쳐 주셨으므로 우리가 악한 비도인(非道人)이 아닐진대 반드시 이 진리를 신복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으로 말미암아 유익함을 얻으려 하면 우리의 허당한 것을 따라 하나님을 공경할수 없는줄 알고 반드시 거룩한 생활을 힘써 연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생활을 조정하는 일정한 규률과 또 허물을 찾을수 없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임을 가르쳐 주신 까닭이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성경에 포함된것에 집중시키자 그리하면 하늘의 심판주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들을 순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같이 가까히 계시고 또 그의 뜻을 그와 같이 평이(平易)하게 보여 주셨으므로 만일 우리가 전적으로 그에게 집착(執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 없다고 핑계할수 없는 까닭이다.

教會의分離와統一에對한 칼빈의解釋

조동진

루터 (Martin Luther)와 부셔(Bucer)가 종교개혁을 계속 진행 할 것이냐에 대하여 주저와 불확실에 쌓여 있을 때에 멜랑톤(Melanchthon)은 “로마에의 복귀”(returning to the Roman Church)를 주장 하기 까지 하였었다.

철저한 종교 개혁의 본질이 칼빈(John Calvin)에 의하여 명백히 나타나기까지는 때때로 용기를 잃은 개혁자들 간에 교황의 지배아래로 도라갈 것이냐에 대하여 빈번히 논의 된 것이 사실이다.

월리암 파크(W. Pauck)은 칼빈을 후기 개혁자라고 단정하여 버리지만 그는 종교개혁의 근본 문제인 “교회와 통일과 분리”에 대한 조직적 이론과 신학적 체제를 그 독자적 권위를 가지고 수립하였다. 유일의 지도자요 선각적 개혁자인 것이다.

칼빈은 그의 시대에 있어서 끊임없이 엄습하고 있는 로마의 위협으로 점점 더 히미 하여지기만 하는 종교개혁도상에서 프로테스탄트 사상의 허다한 문제들을 그의 독특하고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나아가며 분명하게 정리하여 놓았다.

그는 절대로 다른 개혁자들의 추종자가 아니었으며 철저하게 로마에 대한 프로테스트와 그들로 부터의 분리의 정당성을 성서에 입각한 독자적 이해의 기초위에서 해석하고 있었다.

칼빈이 교회의 통일과 분리에 대하여 어떠한 해석을 하고 있었느냐의 기본적인 문제는 그의 종교개혁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서 밝혀져야하며 그가 "교회의 본질"(the nature of the Church)을 어떻게 정의(定義)하였는가에 입각하여 탐구되어야 한다.

여기서 또한 "교회의 본질"에 관한 교리는 반드시 "모든 역사(history)에 대한 "신(神)의 주권성"(the sovereignty of God)의 교리와 동시에 취급함으로써만 "교회의" 혁명으로서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밝히 분석할 수 있고 여기에서 교회의 통일과 분리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칼빈에게 있어서 "신의 주권(主權)"의 문제는 그의 모든 해석원리의 열쇠와 같이 되고 있다.

그는 그의 「기독교강요」 제1편 제17장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그의 집(habitation)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교회를 다스리심에 있어서 아버지로서의 간섭과 배려(配慮)를 특별한 증거로 통하여 나타내신다"라고 증거 함으로서 하나님이 주권적 통치의 능력이 자기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교회의 개혁에도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나? 는 질문이 나오지 않을수 없게된다.

칼빈에 의하면 교회의 근본요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으로 설립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그리스도의 성육신(成肉身)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성취하였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서로 연합함으로써 그의 영원하신 선택으로 설립된 교회에 참여하게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信仰)으로서의 연합"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연합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다.

이 교회의 교제는 「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교제」이하의 것이어서는 않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의 연합」은 진정한 "통일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요 이것은 사탄이 깨트릴 수 없는 것이며 어떻게 강력한 사탄의 압력도 이 통일을 해 할 수는 없다고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 제4편 제1장"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가건적(visible) 교회와 불가건적(invisible)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칼빈의 구별을 바로 규명 할 필요가 있다.

가건적 교회는 신도가 되기를 공언(profess)하는 모든 사람의 집합으로 이루어지며 불가건적 교회는 단순히 그 신앙을 고백하는 무리들로서만이 아니라 참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이루어 진다.

물론 가건적교회(可見的教會)안에 많은 외식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완전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들로 부터 분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가건적 교회에 주어진 의무는 「복음의 전파」와 「성례의 집행」 「권징을 통한 신앙의 훈련」에 있다.

이 세 가지 기능을 성취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분명히 나타나(visible)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외면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어떠한 위세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 사실은 교회가 그 실체에 있어서 부패하고 있는것이 눈앞에 들어나(visible)게 될 때에 벌써 그것은 교회로서의 위치와 권위를 상실하고 막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가건적 교회는 호터진 양떼 처럼, 감추어진 소수의 불과한 것이며 그러나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비밀하신 능력으로 보존되는 것이다."

칼빈이 프랑스 황제에게 "기독교강요"를 드리는 편지(敍詞) 가운데 말로 회는 지금은 앞에 보이는 그 교회 밖에 있으며 이것은 식별(識別)할 수 없

는 것입니다”라고 한것은 가견적교회(可見的教會)의 외면적 전통과 권위에 대한 부정이다.

칼빈은 참된 가견적 교회는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극히 소수의 집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 이 진정한 교회의 소수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키심으로 유지되고 계속된다고 확신하였다.<sup>8)</sup>

진정한 교회는 비록 가견적교회가 변질하여 버렸을 때에라도 복음을 계속 존재하며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다만 “신앙의 통일(the Unity of faith) 안에서 성도들 간에 계승되고 있는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우리가 착념할것은 칼빈이 교회역사에 있어서 변증법적인 운동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의 가사상태(suspended animation)에 머물러있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to preach the Gospel) 존재 하여왔다. 사탄은 항상 이것을 좌절 시키거나 교회가 그 의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왔으며 이 결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부로부터의 압박과 박해를 받아왔다 교회 안으로 부터 교회를 쇠잔케하는 변질한 그리스도인들에 미움과 추방을 받아 왔다.<sup>9)</sup>

가견적 교회가 이러한 난경(難境)에 처해있을때 문제의 해결은 언제나 교회안에 새로운 문제와 낱고 썩은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fresh conflicts)을 이르킨 교회의 혁명운동과 신앙의 부흥운동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 졌었다.

칼빈은 이처럼 교회의 역사를 정교(Orthodoxy)와 배교(Apostasy) 사이의 진동 또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변질 그대로 하나님께로의 회복(歸復)의 두 사이클 계속적으로 오고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교회역사 전반에 걸쳐서 진정한 교회는 그것이 거대한 세계력을 가졌든지 적고 보잘것 없이 박해를 당하고 있든지간에 “전능하신 그분아래” 간절하게 지속되어 왔다고 결론 짓는다.<sup>10)</sup>

교회의 역사에 대한 칼빈의 철학은 또한 그의 교회관(教會觀)의 움직임수

없이 철저한 근거가 되고 있다.

칼빈은 신약교회(the New Testament Church)는 역사 전체에 걸친 교회의 모형(模型)이며 포본이라는 기본적 전제(premise)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신적 부르심을 입고 영감에 충만하였던 사도들이 성실하고 확고부동한 신앙으로 교회를 지도하였음에 불구하고 교회안에 분규와 이단과 어려움이 밀려들었던 것은 신약교회를 계승하여 뒤따를 모든 세대의 교회를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림과 같은 기록이라고 칼빈은 인정 하였었다.<sup>11)</sup> 칼빈은 교회치리(教會治理)와 행정의 정당한 양식(gorm)과 함께 신령(神靈)과 진리로서의 참된 예배의 방법을 참된 교회에 대한 올바른 교리와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 세가지 요소 중의 어느 한가지로 부터 떠나든지 그것은 교회의 순결을 크게 위협하는 중대한위험을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칼빈은 감득하고 있었다.

그러나 칼빈은 속사도시대(續使徒時代)의 교회(post-apostolic Church)에 대하여 신약교회와 동등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고대 교회의 신약적 형태(form)는 무지한 인간들의 무감각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점차 오손(汚損)되고 변형되어 왔다. 그리하여 교회는 점점 저질과 부정에 오염(汚染)되어 마침내는 결과 적으로 중세기(中世紀)의 부패교황권(腐敗敎皇權)과 같은데까지 이르게된 것이라고 칼빈은 인식하고 있다<sup>12)</sup>

이러한때 기독교는 박해 속에서도 이들과 분리 되면서라도 복음에 충실한 신도들로 말미암아 미중(尼衆)속에서 활기를 띠게되고 이와같은 신앙의 개종화와 신도들의 교회로 부터 이탈은 증성스러운 목회자(牧會者)에 대처하여 때로는 그들을 투옥(投獄)하고 의식자와 이단자(異端者)들이 교회안에 흩어 드러옴으로서 이러나는 현상이다.

칼빈은 그리하여 변질된 교회는 점점 부유해 가고 위세를 떨치는 반면 진정한 의미의 가난적 교회는 벌써 변질의 본거지에서 이탈하여 불행 같은 운운이라 할지라도 참되게 복음(福音)을 증거하며 그 본래의 영광을 고난 속에서도 이어가게 된다고 보고있다.<sup>13)</sup>



이 처럼 칼빈에게 있어서는 지상에 있는 가년적교회가 변질하여 그 본래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그 본질을 상실한것이기에 때문에 교회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여기서 교회의 개혁으로서의 종교개혁(宗教改革)에 로마 부패의 분리의 정당성을 부여한 칼빈의 사상적 근거를 우리는 발견한 셈이다.

존 T. 맥네일(John Thomas McNeill)이 그의 "에큐메니칼운동사(A History of the Ecumenical Movement, 1517—1948)에서 지적한것처럼 "칼빈은 평화를 위하여 진리를 희생시키려는 생각은 전연 없었으며 이에 대하여 칼빈의 교리는 다른 개혁자들보다 유독 날카로웠다" 즉 칼빈은 평화보다는 진리에 더욱 충실한데 특기할만한 개혁자인것이다.<sup>11)</sup>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는 모두 교회분리 정당성을 승인하고 있다. 이것은 "교회자유"라는 말로 표현되었다. 종교혁명이 일어나는 그 시초부터 분리(Schism)와 와해(disruption)가 뒤따랐다. 칼빈은 이와같은 분규를 "참신한 분쟁"(fresh conflict)이라는 말로 분규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는 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은 교회의 본질적 척도에서 멀리 떨어진 역사적의 거대한 교회가 그 본래 사명에서 이탈되어 변질자(變質者)로서 그 복음의 지위를 포기하여 버렸을 때에 이러나는 운동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의 기관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신의 주권적 간섭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만 정당하다는 것을 칼빈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않된다. 칼빈은 교회의 통일을 강조함에 있어서도 또한 특출한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그의 저서(著書)를 통하여 인정하게 된다. 그의 「기독교 강요」 제4권에 나타나 있는 교회 통일의 개념은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교회의 통일을 갈망하였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X X X

그가 분명히 불가견적 종교뿐만이 아니라 가년적 교회의 통일도 심중에 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의 저서에서 찾게된다.<sup>12)</sup>

그러나 여기에서 칼빈의 교회통일의 개념이 절대적으로 교회의 통일과 연

합은 "진정한 교회"가 되는것에 그 목적을 국한하여야 된다는 확실한 조건에 속박(restriction)을 받는 분명한 척도(measures)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 강조되었다는 것을 가볍히 생각하여서는 않된다.<sup>13)</sup>

물론 칼빈이 개혁자들 간의 협조와 이해의 증진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절대로 경시(經示)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1545년에 왈드파(Waldeusions)가 루렌시스 일세에게 포악한 학살을 당할 때 칼빈은 도이취와 스위스로 하여금 불란서 정부에 항거를 이르기도록 적극 주선하였으며 살아남은 왈드파를 구제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sup>14)</sup>

또한 그가 제네바에서의 초기에 스위스 프로테스탄트의 연합을 도모(模索)했다는 맥네일(J.T. McNeil)의 주장은 분명히 근거있는 것으로 인정할만하다.<sup>15)</sup>

칼빈이 프로테스탄트의 진정한 통일을 염원하여 왔다면지 또한 근엄없이 다른 프로테스탄트 지도자들과의 접촉을 힘써왔던 사실은 그가 성찬(Eucharist)에 대하여 루터파의 대변자 멜랑톤파의 계속적 접촉을 통하여서도 교리적 합일(Unity)에 도달하지 못하였던 사실과 더불어 함께 고려되어야만 한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개혁파(Reformd)와 루터파(Luthans)사이의 교리적 차의를 해소하는 것만이 두개의 프로테스탄트를 단일화하는 유일한 통로였음이 명백하다.

칼빈은 결코 루터파와 개혁파의 두가지 상반되는 "유카리스트"(성찬)에 대한 교리를 모두 포함시키는 현대적 "잉클루시비즘(inclusivism)적인 방법으로 두가지 해석을 다 포함시키는 통일은 생각한일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칼빈은 결코 분리되어 있는 프로테스탄트 형제간의 합일(Unity)을 뜻하여 본일이 없는 벨링거(Bulinger)와 같은 교리적 편협(Confessional intolorance)에 빠진것은 아니다.

오히려그는 그가 지상(地上)에서 떠날 후에 까지도 그의 목적하면 루터파 교회가 계속 하여 루터파와의 합위를 위한 노력을 하리만치 진정한 교리적 통일을 염원한 것이다.<sup>16)</sup>

칼빈이 그의 종교개혁(宗教改革) 동료들과 얼마나 친밀하고 너그렷었던가는 그가 루터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친밀감과 존경에 가득찬 편지로서 볼수있다.

Would that I could fly to you, that I might even for a few hours enjoy the happiness of your society; for I would prefer, and it would be far better, not only upon this question, but also about others to converse personally with your self; but seeing that it is not granted to us on earth, I hope that shortly it will come to pass in the kingsom of Adieu, most renowned sir, most distinguished minister of Christ, and my ever-honored father. The Lord himself rule and direct you by his own Spirit, that you may persever even unto the end, for the common good and benefit of his own Church.<sup>17)</sup>

칼빈이 개혁자(改革者)들간의 긴밀한 협동을 힘쓰고 개인적 중상(abuse)을 깨트리기 위하여 노력한 허다한 증거는 그에게 신앙적 편협이라는 혐구로 대하는 현대의 어떤 사람들의 중상이 전혀 그릇된 것임을 알게한다.

한때 루터가 칼빈을 "악마 : devil"라고 비난 하였지만 칼빈은 도리혀 그가 나를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뛰어난 재능과 은총을 받은 친구로 존경한다.<sup>18)</sup>고 할만치 그는 너그렷었다.

때때로 변질의 위기를 겪었던 멜랑톤에게 대하여 보낸 한 편지에 나타난 것을 보면 "내가 죽을지라도 몇천번 우리의 통일을 원 하였는지 모른다"는 절실한 그의 통일에 대한 염원이 밝혀져있다.<sup>19)</sup>

그러나 칼빈에게 있어서 이와같은 통일에대한 염원(念願)과 함께 그보다 못지 않게 중요성을 가리는 문제가 있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종교개혁(宗教改革)이 "남은 교회"에 대하여 진정한 바른 교회를 다시 찾아 계속 유지하도록 설정함으로써 진정한교회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다는것과, 교회통일의 움직임수 없는 전고한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진정한 교회에 대한 최종 표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에 대한 절

대적 복종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sup>20)</sup>

칼빈은 항상 그의 동료 개혁진들에게 평화의 소망을 달성키 위하여 너무 가법게 양보 하는 일에 대하여 엄히 경계하기를 잊지않았다.<sup>21)</sup>

"진정한 교회"와 외면적(外面的) "하나의교회"를 결코 동일시한 일이 없는 칼빈은 교회의 "순결"을 희생한 "통일"을 결코 진정한 통일로 간주하지 않았고 그러한 노력은 전적으로 피악시 하고 이단시 하였다.

가전적 교회에 있어서의 통일(unity)과 순결(purity)간의 긴장에 직면하였던 칼빈은 "우대는 인간임을 알아야하고 그러므로 착오를 범하기 쉽다"는것을 주장 하였다. 칼빈이 그렇게 날카롭게 대하던 로마 캐톨릭이나 아나·압티스트등에 대한 그의 태도는 개혁자들에 대하여는 항상 존경과 친절을 감지 않았던것을 우리가 또한 잊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존경과 이해와 친밀한 교제를 잊지 않았던 칼빈이라도 그의 시대에 있어서 그렇게도 필요 하였던 프로테스탄트 통일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해답이 없는것을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고려하여야 한다.

1560년 그는 임종시에도 그는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 하기위하여 그리스도인 간의 공통적인 노력을 할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는 그의 임종(臨終) 직전에 프로테스탄트의 차의 절을 조정하기 위한 어떤 "협의체를 가지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생각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이 발표된 것을 분석하여 볼 필요 가 있다.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분열을 종식 시키기 위하여 "자유"와 "진 세계적 인"것을 원측으로 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 "자유"는 세가지 품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그것은 "위치"와 "인물"과 "진행의 방법"이다.<sup>22)</sup>

여기서 나타난 것은 참으로 칼빈은 교회의 "자유"를 희생 시키려는 어떤 운동에도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교회간의 상이점(相異點)과 분열의 마음 아픈것이기는 하지만 "자유"를 희생하는 "세계적" 협의체는 어디까지나 칼빈에 의하여 경고 되었던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자유 의 보장책으로서 위의 세 원측 즉 "위치"와 "인물"과 "진행의 방법"을

내세운 칼빈의 예민한 통찰력은 매우 정중하고 심각한 해석을 가지고 다루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프로테스탄트의 합일을 그처럼 죽음을 걸고 염원하였던 칼빈이 프로테스탄트의 생명인 “자유”의 원측에 대해서 못지 않게 철저하였던 것과 세계적 협의체의 구성원리로서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인물”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님께 따라서 “자유”에 대한 보장 여부가 규명(糾明)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단언 하였다는 사실로서 우리는 그가 교회의 통일과 분리에 대하여 취한 태도와 해석의 어떠한 한계를 발견할수 있게 된다.

< 註 >

1.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6th American edit., J. Allen, ed. (Philadelphia) Bk. I, Chap. 17 vi.
2. Ibid., Bk. IV, Chap. 1, "The true method of giving peace and of reforming the Church," Tracts on the Reformation, H. Berveridge, tr.
3. Institutes, loc. cit., iv, v.
4. "True Method..." pp. 264, 297.
5. Institutes, "Dedication," p. 33; "De Scandalis," Tractatus Theologici Omnes (Geneva, 1576), p. 118.
6. Ibid., p. 37; Bk. IV, chap. 1, iv.
7. "De Scandalis," pp. 117
8. "Reply of John Calvin to Sadolet's Letter," Tracts, I, 34, 43.
9. Calvin, op. cit., chap. 2, i.
10. "De Scandalis," pp. 121-2.
11. A History of the Ecumenical Movement, ed. Ruth Rouse, (S.P.C.K., London, 1954) p. 50.
12. John H. "Cromm, Calvin, and Ecumenicity," Johncalvin, Contemporary Prophet, edited by Jacob T. Hoogstra, p. 151.
13. Ibid. p. 150.
14. Op. cit., ed. Rouse, p. 48.
15. Ibid. 49.
16. Ibid. pp. 52, 53.
17. Bonnet, Jules, Letters of John Calvin, Vol. I, 440-42 (trl.).
18. Cromminger, op. cit., p. 154.
19. Ibid.
20. Cromminger, op. cit., pp. 162, 163.
21. Ibid., p. 159.
22. Bonnet, or. cit IV. 156

## 칼빈의 政治論

한 철 하

### (1) 칼빈 정치론의 기본입장

칼빈의 정치론(政治論)도 그의 사상의 모든 다른 부분과 같이 신본주의(神本主義)가 그 특징이라 하겠다. 정치의 목적이 일반시민들의 복락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국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엄을 보존하며, 참된 종교를 유지함을 그 제일 목적으로 한다. 루벤세스 1세에 보낸 서한 가운데 그는 정치의 이와같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서 저해를 받지 않고 보전 되는일, 하나님의 권리의 존영(尊榮)이 유지 되는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사이에서 존상을 받지 아니하고 지속(持續)되는일, 이와같은 일이 폐하의 배려에 해당한 일이며, 폐하의 왕위에 합당한 일이다. 폐하의 왕국을 정치함에 있어서 폐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여기는데 있어서만 참된 왕위는 존속될 것이니이다. 대개 하나님의 영광이 정부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합법적 권세가 되지 못하고 찬탈(篡奪)한 권력에 불과한 것이니이다. 그리고 말하고 있다. 이와같이 칼빈에 있어서 정치적 권세 즉 정권은 그 자체를 위하여서든가, 혹은 인민을 위한 다른가 하는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한 정권이 하나님의 뜻의 수행과 그 영광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서 그 정권은 벌써 실효(失効)하여 버리고 그 합법성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칼빈의 사상은 그의 초기작품에서 불수있을 뿐 아니고, 그의 모든 작품에 일관하여 있고, 더욱이 후기작품인 (1561) 다니엘서 강해에도 강조되어 있다. 다리오왕은 다니엘을 필박하기 위한 그 신하들의 괴일에 넘어가 자기